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정주미** · 이동형***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하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패널조사(MCAPS) 데이터 중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은 선형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해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분류한 결과, '높은-감소'(2.64%), '낮은-증가'(71.5%), '낮은-감소'(11.56%), '높은-증가'(14.3%)의 4개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와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초기에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계층들보다는 초기 사회적 위축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다가 감소하는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발달궤적을 따라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친구지지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관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이해와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 본 연구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7S1A3A2067778).
본 논문은 정주미(2020)의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팀 팀원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leepsy@pusan.ac.kr

I. 서 론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본인이나 가족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 중 탈북청소년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다문화청소년은 10만 9,387명으로 전체 인구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지만, 2015년에 비해 그 수가 25%나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자체, 학계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주 배경 자체가 가져오는 스트레스, 소수자의 위치, 외모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이중 문화에서 오는 혼란, 한국어 사용의 미숙함 등으로 인해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지희, 황숙연, 2016). 특히 한국인 특유의 자국 문화 고집 현상은 다문화청소년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와 같이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서 마주하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 경험은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면서 그들의 소속감이나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면서 다문화청소년은 점차 대인관계에서 스스로 철회하는 행동 양상을 발달시킬 수 있다(모상현, 2018).

이처럼 개인이 다양한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스스로 철회하는 행동을 사회적 위축이라고 하는데(Rubin, Coplan & Bowker, 2009), 사회적 위축과 같이 특정 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국내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대개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은 수줍음이나 사회불안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거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ubin et al., 2009).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내거나 사회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또래들 주변을 ‘멤돌기’ 때문에(Oh, Rubin, Bowker, Booth-LaForce, Rose-Krasnor, & Laursen, 2008), 또래 상호작용의 기회가 더욱 적어지면서 건강한 적응과 사회성 발달의 기회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Rubin et al., 2009). 사회적 위축은 그 자체로서 심리적 장애는 아니지만,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동이 만성

화될 경우, 낮은 자존감,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더욱 심각한 심리적 장애의 증상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Goodwin, Fergusson, & Horwood, 2004; Rubin & Burgess, 2001). 또한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은 또래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아예 또래관계로부터 배제되거나 만성적인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김경은, 최은희, 2017).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위축은 다양한 궤적을 따라 발달해가는 것으로 보인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조예진, 주혜원, 현명호, 2015; Oh et al., 2008). 그동안 수행되어온 여러 종단연구들은 서로 다른 연령대와 측정방법(즉, 정보제공원)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연구하였다. 가령, Oh 등(2008)은 5~8학년(12세~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평정을 통해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고 발달궤적을 추적하였는데,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이 ‘낮은-유지’, ‘감소’, ‘증가’의 3가지 계층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였다. Sterba, Prinstein과 Cox(2007)는 보다 낮은 연령대인 2~11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낮은-유지’, ‘증가’, ‘높은-유지’의 궤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Eggum et al.(2009)도 4.5세부터 7세 아동이 10.5세와 13세가 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총 4회 어머니 보고와 교사의 보고 방식으로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정보제공원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어머니 보고에 따른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서는 ‘낮은-감소’, ‘높은-감소’, ‘중간-유지’, ‘중간-증가’의 4가지 잠재계층이, 교사의 보고에서는 ‘낮은-유지’, ‘높은-감소’, ‘낮은-증가’의 3가지 잠재계층이 산출되었다. Booth-LaForce와 Oxford(2008)은 1~6학년을 대상으로 교사가 보고한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탐색하였는데 3가지의 궤적을 보고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상’ 궤적은 Oh 등(2008)이 산출한 ‘낮은-유지’ 궤적과 같이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궤적이었고, 낮은 수준으로 시작했다가 사회적 위축이 점점 높아지는 ‘증가’ 궤적과 높은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감소’ 궤적이 그 뒤를 이었다. 요컨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몇몇 선행 연구를 통해 수렴되는 결과는, 연령대와 정보제공원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증가, 감소, 혹은 유지되는 등 여러 이질적 경로를 따라 발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위축의 발달적 이질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종단연구를 통해 탐색하거나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또한

연구대상자 면에서도 다문화청소년 집단과 같이 사회문화적 위험요인에 더 취약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반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나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관련 변인이나 또래관련 변인의 영향에 집중해 왔다. 부모관련 변인들 중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반영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었는데, 대체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애정, 돌봄, 감독 지도의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사회적 위축이 낮은 경향이 있는 반면(민원홍, 손선옥, 2017;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정경미 외, 2013; Rubin, Coplan, & Bowker,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압이나 무관심, 학대, 방임 등을 특징으로 할 경우, 자녀의 사회적 위축뿐 아니라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학교부적응, 비행과도 광범위한 관련성을 보이는 결과들을 제시해왔다(김춘경, 조민규, 2018; 박기원 2014; 신지현, 강현아, 2018; 홍나미, 박현정, 201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대부분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 설계를 통해 검증한 연구들이며, 소수의 종단연구들 중에서도 부모의 특정 양육행동이나 태도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 발달양상, 즉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은 학교 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학대에 비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장기간 유지 및 지속되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보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임적 양육태도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방임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정서 및 신체 발달 등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무관심하고 방치하며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공해줘야 하는 양육행동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에 의해 오랫동안 방임된 아동·청소년은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의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해 역기능적 자아가 발달될 가능성이 크고, 감정적 대처를 도와줄 만한 양육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해 감정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ter, 1982). 따라서 부모가 이러한 양육태도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부모 자신이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방임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bidin, 1990).

실제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그들 자신의 문화적응을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장시간 저임금으로 노동해야 하는 경우가 흔하며, 바쁠 때 자녀를 돌봐 주거나, 집안의 어려움이나 자녀 교육과 관련해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만한 적절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다문화 배경으로 인해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의 어려움(강선자, 손수민, 2011), 부족한 양육지식으로 인한 좌절감(오혜정, 2015),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감(박미경, 엄정애, 2007) 등도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녀 양육 시 방임적 태도를 취하게 될 위험이 높으며(Fontes, 2005), 가정에서 부모의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사회적 위축 경향을 보이기 쉬우며, 이러한 대인관계 어려움은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박기원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

그러나 부모의 방임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경험과는 별개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형성하는 또래관계 또한 사회적 위축의 발달에 의미 있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전반적으로 또래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는 시기로, 부모의 적절한 양육과 함께 또래의 긍정적 영향, 특히 친구에게서 얻는 강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Degnan & Fox, 2007), 또래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Oh et al., 2008).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들(김명숙, 1995; Dubow & Tisak, 1989)은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지원에 따라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등으로 구분해 왔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지원은 친구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친구지지는 비슷한 연령의 두 사람이 서로를 지지해주면서 만족감을 제공하고 자존감을 고양시켜주는 호혜적 관계를 의미한다(Parker & Asher, 1993). 이러한 친구지지는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감시킬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이용순, 박성희, 2017), 긍정적 자아

정체감 발달을 촉진하며 자존감을 높여 건강한 자아상 형성에 기여한다(Bishop & Inderbitzen, 1995).

더욱이,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그 자체로 강력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거나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증거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친구지지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갈등이나 낮은 가족 유대감이 사회적 위축뿐 아니라 우울과 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성수, 2013). 또한, 강력한 친구지지는 또래관계에서 청소년이 안정감을 경험하는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발달궤적이 친구지지에 의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Gazelle & Rudolph, 2004).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안과 불안정감을 경험하고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로 인해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적응적 특성을 보이는 다문화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점차 또래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이며 강력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면, 부적응의 위험이 낮아지며, 사회적 위축의 정도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친구지지와 같은 긍정적 또래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편적 합의가 있으며,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를 시사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지만, 아직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과 관련하여 친구지지의 조절(완충)역할 등 구체적인 역할을 검증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탐색하여 사회적 위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발달궤적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와 친구지지 각각의 주효과와 이들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고, 5년의 기간에 걸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이질적인 발달궤적, 즉 잠재계층을 확인할 것이며, 특히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친구지지가 완충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이 국내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부모의 방임과 친구지지가 다문화청소

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어떠한 중단적 영향을 미치는지 중요한 실증적 지식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건에서 만일 친구지지가 부정적 발달궤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부모의 방임을 경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구지지의 완충효과가 확인된다면,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예방하거나 이미 사회적으로 위축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중재, 지도, 및 상담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은 어떠한 발달 양상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은 어떻게 분류 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진행한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패널조사(MCAPS) 데이터 아카이브 중 2차~6차 청소년용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청소년용 설문의 조사 영역은 크게 다문화 관련 요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요인인 사회, 정서, 행동 요인 중 사회적 위축, 환경 요인인 부모와의 관계 중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변인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청소년으로 연도별 대상자 수는 표 1과 같다. 2011년(1차년도) 표본에 포함된

1635명의 다문화가정 학생 중 이탈자(조사 거부, 유학, 이민 등) 135명을 제외한 2차년도 연구대상자의 몇 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1500명 중 남학생은 740명(49.3%), 여학생은 760명(50.7%)이었다. 아버지의 출신 국가는 한국이 83.4%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44.9%), 중졸 이하(25.8%), 4년제 대졸(9.1%), 2-3년제 대졸(6.1%) 순이었고, 아버지의 직업은 기능직(35.4%), 관리/사무직(16.6%), 농업/어업(15.9%) 순이었다. 어머니의 출신 국가는 일본(30.6%), 필리핀(23.1%), 중국-조선족(17.6%), 중국-한족 혹은 기타 민족(6.7%)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43.4%), 2-3년제 대졸(22.8%), 4년제 대졸(14.8%), 중졸 이하(10.2%) 순이었고, 어머니의 직업은 학생/주부(37.4%), 관리/사무직(21.6%), 기능직(14.9%) 순이었다.

표 1

연도별 다문화청소년 연구대상자 수

구분	2차(2012년)	3차(2013년)	4차(2014년)	5차(2015년)	6차(2016년)
대상자 수	1490명	1443명	1370명	1337명	1319명

2. 측정도구

1) 사회적 위축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한 문항은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2011)이 사용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재구성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예: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등). 각 문항의 응답 내용은 ‘매우 그렇다.’의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Likert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0.79로 나타났다.

2)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측정 도구는 이경상 외(2011)가 사용한 문항들을 토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재구성한 7개의 문항(예: “부모님은 나보다 바깥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부모님은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방임적 양육태도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마지막 2개 문항(“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7개의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89로 나타났다.

3) 친구지지

다문화청소년의 친구지지는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중 친구지지의 8개 문항 중 7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5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예: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등). 친구지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7개 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값은 0.96으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내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되었다. 첫째,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초5 시점에서부터 중3 시점까지 5개년 간 측정된 사회적 위축, 그리고 초5 시점에 측정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 및 친구지지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5개년에 걸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관찰 시점에서의 변인 평균값인 절편과 시간 진행에 따른 평균값의 변화 정도인 기울기를 추정하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확인하였

다.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선형, 2차함수)을 가정하여, 5개년 간 사회적 위축의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의 변화 추세가 개인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분석을 수행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잠재계층에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가 미치는 효과와 이들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계층 대비 비교계층에 속할 확률의 비인 승산비(odds ratio: OR)을 예측하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상호작용항 생성 시 두 변인은 모두 평균중심화하여 투입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22과 Mplus 7.4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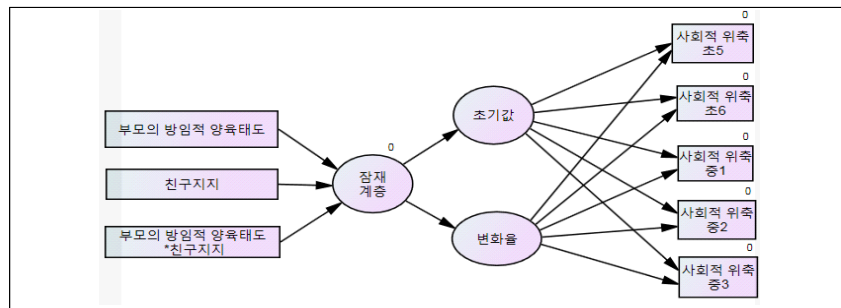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계적 연구모형

III. 결 과

1.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사회적 위축(초5~중3 5개년 간),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 (초5), 친구지지(초5)의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량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량

변인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위축	2차년도(초5)	1490	2.20	0.73	-0.05	-0.56
	3차년도(초6)	1443	2.25	0.72	-0.11	-0.59
	4차년도(중1)	1370	2.26	0.74	-0.16	-0.63
	5차년도(중2)	1337	2.35	0.74	-0.22	-0.51
	6차년도(중3)	1319	2.32	0.73	-0.14	-0.5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초5)		1500	1.85	0.55	0.25	-0.55
친구지지(초5)		1500	3.90	0.84	-0.57	0.12

2차년의 사회적 위축 평균은 2.20($SD=0.73$), 3차년은 2.25($SD=0.72$), 4차년은 2.26($SD=0.74$), 5차년은 2.35($SD=0.74$), 6차년은 2.32($SD=0.73$)로 나타났다. 6차년도(중3)에는 5차년도에 비해 사회적 위축 수준이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4차년도(중1)에서 5차년도(중2)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의 평균은 1.85($SD=0.55$), 친구지지의 평균은 3.90($SD=0.84$)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간 상관관계는 .28에서 .56까지 정적 상관을 보였다($p<.01$).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는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16$, $p<.01$), 이후에는 매우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이거나(4차년도 $r=.08$, $p<.01$; 6차년도 $r=.07$, $p<.05$),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3차년도와 5차년도). 한편, 친구지지는 모든 차수에서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30<r<-.18$, $ps<.01$).

표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2차년 사회적 위축(1)	3차년 사회적 위축(2)	4차년 사회적 위축(3)	5차년 사회적 위축(4)	6차년 사회적 위축(5)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6)	친구 지지 (7)
1	-						
2	.43**	-					
3	.41**	.50**	-				
4	.33**	.40**	.56**	-			
5	.28**	.37**	.48**	.56**	-		
6	.16**	.03	.08**	.04	.07*	-	
7	-.30**	-.20**	-.23**	-.19**	-.18**	-.24**	-

* $p < .05$, ** $p < .01$

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 분석

잠재성장모형은 각 개인의 반복 측정된 값으로 개별 회귀선을 찾은 후, 이로부터 개인의 초기치 평균값과 변화율 평균값을 얻어서 하나의 초기치와 변화율로 이루어진 함수를 얻는데(Muthén & Muthén, 2000),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전체적인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분석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반복측정 시 발생한 결측치에 대해서는 무선적으로 발생했다는(missing at random) 가정에 따라 완전정보 최대우도(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 추정법으로 처리하였다. 종단 데이터의 변화함수를 가정하기 위해, 먼저 무변화모형과 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모형은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인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모형이며, 변화모형은 선형모형 혹은 비선형(이차함수) 모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모형별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CFI	NFI	IFI	TLI	RMSEA	AIC	BIC
무변화	243.09	13	.00	.88	.87	.88	.86	.10	257.09	257.14
선형	58.08	10	.00	.97	.96	.97	.94	.05	78.08	78.15
비선형	93.35	6	.00	.96	.95	.95	.89	.09	121.35	121.45

세 모형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변화모형의 경우, 카이제곱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 .001$), CFI, NFI, IFI, TLI가 권장 기준값(.90)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RMSEA도 권장 기준값(.08)에 미치지 못하였다. 비선형(이차함수) 모형의 경우, CFI, NFI, IFI가 권장 기준값에 도달하였으나 TLI는 그렇지 못한 반면, 선형모형의 경우 모든 절대 적합도 지수가 권장 기준값에 도달하였다. 또한 상대 적합도 지수인 AIC와 BIC 값을 비교할 때 선형모형이 세 모형 중 가장 낮은 값을 보임에 따라 선형모형이 자료에 가장 부합되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초기값 평균($M=2.21$, $p < .001$)과 변화율 평균($M=0.04$, $p < .001$)이 모두 유의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증가)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기값의 분산($\sigma^2=0.27$, $p < .001$)과 변화율 분산($\sigma^2=0.02$, $p < .001$)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잠재적 이질성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를 추출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중심으로 그 유사성에 따라 잠재계층을 분류하는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결과

		추정치	S.E.	C.R.
평균	초기값	2.21	0.02	129.06***
	변화율	0.04	0.01	6.41***
분산	초기값	0.27	0.02	15.45***
	변화율	0.02	0.00	9.31***

*** $p < .001$

4.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상이한 개인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 간에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사한 잠재계층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의 지표, 동질성 등의 지표들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5개년(2-6차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어떻게 발달하였는지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수와 각 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표6에 제시하였다.

계층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AIC, BIC, Adj. BIC는 작을수록 더 나은 모형을 의미하며, entropy는 1에 가까울수록 하나의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분명해지기 때문에(Muthén & Muthén, 2000), 계층 수 '4'인 경우가 다른 계층 수에 비해 지표들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entropy를 살펴본다면 계층 수 '2'는 .64이며 계층 수 '3'은 .58로 감소했고, 계층 수 '4'인 경우 .78이며 계층 수 '5'인 경우도 .81로 계층 수 '4'부터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 수의 유의성 검정인 LMR(Lo-Mendell-Rubin)을 조사했을 때 계층 수 '4'와 계층 수 '5'인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표 6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적합도 지수

	class=2	class=3	class=4	class=5
Log Likelihood	-7317.02	-7313.27	-7260.99	-7260.99
AIC	14660.05	14658.54	14559.97	14565.97
BIC	14730.24	14744.73	14662.56	14684.76
Adj. BIC	14688.94	14694.10	14602.20	14614.87
entropy	.64	.58	.78	.81
Lo-Mendell-Rubin 검증	17.40($p=.15$)	7.19($p=.51$)	15.57($p<.05$)	15.85($p<.05$)
n of class	1=186(11.38%)	1=229(14.01%)	1=43(2.64%)	1=43(2.64%)
	2=1449(88.62%)	2=1300(79.5%)	2=1169(71.5%)	2=1169(71.5%)
		3=106(6.49%)	3=189(11.56%)	3=189(11.56%)
			4=234(14.3%)	4=234(14.3%)
				5=0(0%)

각각의 지표들을 고려할 때 잠재계층을 4개로 분류하는 것과 5개로 분류하는 모형 모두 타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계층 수 5인 경우 한 계층이 추가된 것 외에는 각 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계층 수 4인 경우와 동일하였다. 따라서 통계적인 지표와 간명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잠재계층의 수를 4개로 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4개 잠재계층에 대한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표준화된 계수로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값

	‘높은-감소’	‘낮은-증가’	‘낮은-감소’	‘높은-증가’
초기값	2.80***	2.18***	1.85***	2.45***
변화율	-0.31***	0.05***	-.140***	0.20***

*** $p < .001$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내재된 잠재계층들의 초기 수준과 변화율을 고려하여 각 계층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첫 번째 계층은 ‘높은’ 초기값에서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 ‘높은-감소(2.64%)’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계층은 ‘낮은’ 초기값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 ‘낮은-증가(71.5%)’라 명명하였고, 세 번째 계층은 초기값도 낮은 상태에서 변화율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낮은-감소(11.56%)’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층은 높은 초기값 수준에서 이후에도 상당한 증가를 보이기 때문에 ‘높은-증가(14.3%)’로 명명하였다. 확인된 4개 잠재계층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세를 그림 2에 제시하였고, 4개 잠재계층의 각 차수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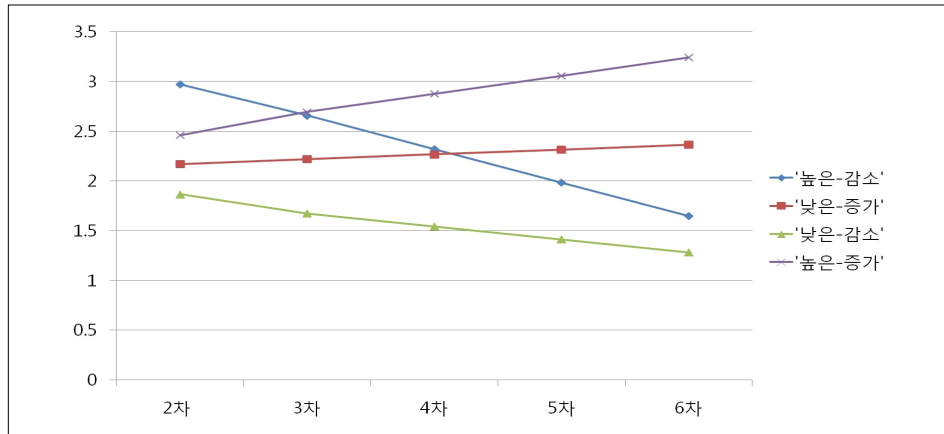


그림 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표 8

2-6차년도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잠재계층별 빈도(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잠재계층	빈도(비율)	2차	3차	4차	5차	6차
'높은-감소' (계층 1)	43(2.64%)	2.97(.40)	2.66(.15)	2.32(.12)	1.99(.09)	1.65(.06)
'낮은-증가' (계층 2)	1169(71.5%)	2.17(.67)	2.22(.30)	2.27(.24)	2.32(.18)	2.37(.12)
'낮은-감소' (계층 3)	189(11.56%)	1.87(.66)	1.68(.20)	1.55(.24)	1.42(.15)	1.28(.10)
'높은-증가' (계층 4)	234(14.3%)	2.46(.73)	2.70(.30)	2.88(.24)	3.06(.18)	3.24(.12)

5.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 및 상호작용이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잠재계층에 대해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각 계층별로 표 9에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1점 증가할 때, 사회적 위축의 ‘높은-감소’ 계층 대비 ‘낮은-증가’ 계층에 속할 승산비(odds ratio: OR)가 0.51이었으며,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OR은 1.3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높을 때, 다문화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에서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하면서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비교적 작은 폭으로 증가(계층 2)하거나 감소(계층 3)하는 발달궤적을 따라 발달하기보다는, 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양상의 발달궤적을 따라 발달할 가능성이 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표 9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와 친구지지가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

기준계층				높은-감소(계층 1)					
비교계층	낮은-증가(계층 2)			낮은-감소(계층 3)			높은-증가(계층 4)		
	B	S.E.	OR	B	S.E.	OR	B	S.E.	OR
부모방임	-0.68*	0.31	0.51	-0.60*	0.31	0.55	-0.49	0.34	0.61
친구지지	0.09	0.17	1.10	0.47**	0.18	1.60	-0.06	0.18	0.95
상호작용	0.08	0.30	1.09	-0.25	0.31	0.78	-0.27	0.34	0.76
기준계층				낮은-증가(계층 2)			낮은-감소(계층 3)		
비교계층	낮은-감소(계층 3)			높은-증가(계층 4)			높은-증가(계층 4)		
	B	S.E.	OR	B	S.E.	OR	B	S.E.	OR
부모방임	-0.06	0.18	0.95	0.22	0.15	1.25	0.25	0.20	1.28
친구지지	0.36***	0.09	1.44	-0.15**	0.08	0.86	-0.52***	0.11	0.60
상호작용	-0.32**	0.18	0.73	-0.33**	0.15	0.72	0.01	0.20	1.01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친구지지가 1점 증가할 때, 사회적 위축의 ‘높은-감소’ 계층 대비,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1.60배 높았다. 또한,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1.44배 높았고,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은 0.86이었으며, ‘낮은-감소’ 계층에 비해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은 0.69였다. 이

러한 패턴의 결과들은 친구지지가 높을 때,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초기에 높다가 크게 감소하는 궤적(계층 1)이나 사회적 위축이 꾸준히 증가하는 궤적(계층 2)보다는, 초기에 사회적 위축 수준이 낮으면서 완만하게 꾸준히 감소하는 궤적(계층 3)을 따라 발달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낮은-감소’ 궤적(계층 3)보다는,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비교적 가파르게 증가하는 궤적(계층 4)을 따라 발달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낮은-증가’ 계층을 기준집단으로 하고, ‘낮은-감소’ 계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을 때, 그리고 ‘높은-증가’ 계층을 비교집단으로 하였을 때,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즉 상호작용항이 1점 증가할 때, ‘낮은-증가’ 계층에 비하여 ‘낮은-감소’ 계층의 OR은 0.73이었으며, ‘낮은-증가’ 계층 대비 ‘높은-증가’ 계층의 OR은 0.72였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친구지지의 평균점을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친구지지 그룹과 낮은 수준의 친구지지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X)의 증가에 따라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우도비와 낮은-증가 계층에 비해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증가’ 계층을 기준으로 ‘낮은-감소’ 계층을 비교할 때,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낮은 수준일 때는 친구지지의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낮은-증가’ 계층보다는 ‘낮은-감소’ 계층, 즉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발달궤적에 속할 OR이 뚜렷하게 높은 반면, 친구지지 수준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증가’ 계층과 ‘높은-증가’ 계층을 비교할 때, 친구지지의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할 때 ‘낮은-증가’ 계층보다는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이 증가하는 반면, 친구지지의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함에 따라 ‘낮은-증가’ 보다는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지지의 수준이 낮을 때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함

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발달궤적(즉, ‘낮은-증가’에 대비하여 ‘높은-증가’ 계층)을 따라 사회적 위축이 발달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반면, 친구지지의 수준이 높을 때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 발달궤적에 속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친구지지가 완충시켜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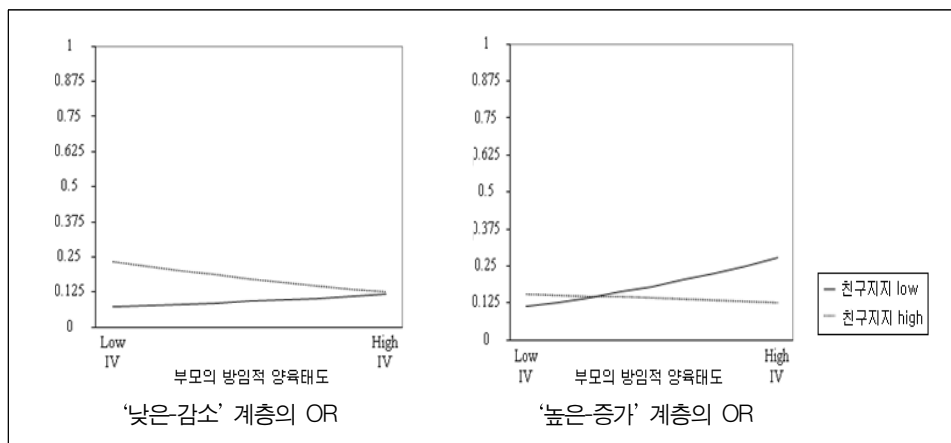


그림 3. 친구지지 수준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에 따른 ‘낮은-증가’ 계층 대비 ‘낮은-감소’ 계층 및 ‘높은-증가’ 계층의 승산비(OR)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가족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초5)~6차년도(중3)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탐색해보고, 그러한 변화과정에 나타나는 이질적 발달궤적(잠재계층)을 성장혼합모형을 통해 분류,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5부터 중3까지의 5년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전반적으로 선형적인 발달궤적을 가지며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청소년 또한 학령후기 사춘기 진입과 청소년기 초기를 지나면서 또래관계와 또래집단의 영향이 이전 시기보다 커지고 자의식 고조되며 자기중심성이 증가하는 등 일련의 사회적, 사회인지적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며, 또래의 평가나 영향에 더욱 민감해지지만, 자의식과 자아중심성의 증가로 불안정한 자아상을 경험하고 사회불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 경향성의 전반적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Wicks-Nelson & Israel, 2015).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가적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선형적인 증가세를 보인 점은 아동기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탐색한 다른 종단연구(좌현숙, 2018)에서 보고된 전반적 발달 양상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1 이후의 청소년기 동안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본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의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일반화된 해석에는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지막 6차년도에 중2에서 중3의 시기로 올라가면서 사회적 위축의 증가세가 감소세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는데,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 사회적 위축의 발달을 추적하여 전반적 ‘안정’ 추세를 보고한 연구(정경미 외, 2013)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위축이 선형적인 궤적을 따라 발달하면서 여전히 꾸준히 ‘증가’한다는 보고(이봉주 외, 2014)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초기부터 중학교 말까지를 포함하여, 특히 중3 이후의 청소년기에 사회적 위축이 증가 추세가 아닌 안정 혹은 감소 추세로 바뀌는지의 여부는 다른 종단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로 실증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대한 종단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발달궤적을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처럼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단일 궤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도 의미가 있지만, 이질적인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을 찾아 기술하고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려는 접근이 이론적, 실제적 측면에서 보다 생산적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중기와 청소년기 동안 사회적 위축의 변화가 단일의 발달 궤적에 의해서 설명되기보다는 변화의 양상에 있어서 뚜렷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여러 종단연구(예: 정경미 외, 2013; 조예진 외, 2015; Oh et al., 2008)를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결과, 이러한 발달적 이질성(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함)이 시사됨에 따라,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사회적 위축의 이질적 잠재계층을 확인하였는데, 총 4개의 발달궤적(‘높은-감소’, ‘낮은-증가’, ‘낮은-감소’, ‘높은-증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재계층 중 ‘낮은-증가’ 계층에 속하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많아 71.5%를, 그 다음은 ‘높은-증가’ 계층으로 14.3%를 차지하여 무려 85.8%의 다문화청소년이 초5~중3의 청소년기 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보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반면, 나머지 약 15%의 다문화청소년들은 주로 낮은 초기 값에서 시작하여 완만하게 감소하는 ‘낮은-감소’(11.56%) 계층이나 비교적 높은 초기값에서 시작하여 보다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의 ‘높은-감소’(2.64%) 계층에 속하여, 사회적 위축이 ‘감소’하는 궤적을 따라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은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의 연구가 거의 없고, 일반 아동·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학년(연령)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4개의 발달궤적은,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이 연령대와 정보제공원에 따라 다양하게 보고되었지만, 대체로 증가, 감소, 혹은 유지되는 등 몇 가지 이질적 궤적을 따라 발달한다는 결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의 다문화청소년들이 ‘낮은-증가’ 궤적을 따른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낮은-유지’ 궤적(혹은 ‘정상’ 궤적)이 가장 흔하다는 결과(Booth-LaForce & Oxford, 2008; Oh et al., 2008)와는 대조를 이룬다. 가령, 일반 아동·청소년들 대상의 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연령대가 가장 비슷한 국외 연구(Oh et al., 2008)에서 5학년~8학년 학생들의 85%가

‘낮은-유지’ 계층에 속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연구는 미국의 일반(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표본을 대상을 한 점, 본 연구와 달리 자기보고가 아닌 또래평가를 활용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의 차이는 이러한 요인들에 기인할 가능성도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리사회적, 사회문화적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할 수 있으므로(김아영, 김수인, 2011; 장미, 전종설, 2013), 이 시기 동안 대다수의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양상보다는 완만하게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적인 검증은,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잠재계층(예컨대, ‘감소’ 대비 ‘증가’ 계층)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가능하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연구문제 3).

본 연구에서 이러한 두 변인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위축의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차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궤적들(계층 2와 계층 3)보다는 초기에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위축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궤적(계층 1)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 측정치인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2차년도의 사회적 위축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16)을 보였으나, 이후에 점차 사회적 위축 측정치와의 상관이 낮아지거나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결과로, 초기에 측정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는 청소년기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또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등 사회적 관계가 가족관계의 맥락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위축이 경감될 여지가 있고(Greenberger, Josselson, Knerr, & Knerr, 1975),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고, 부모의 학대나 방임이 있더라도 이에 저항함으로써 그 전반적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친구지지와 같은 다른 사회적 관계 변인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낮은-증가’ 궤적(계층 2)보

다는, 초기 사회적 위축이 낮으면서 꾸준히 감소하는 ‘낮은-감소’ 궤적(계층 3)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높은-증가’ 궤적(계층 4)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등 상대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궤적을 따라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친구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경우, 또래관계 문제가 경감되고 긍정적 자아정체감 발달이 촉진되며(Bishop & Inderbitzen, 1995), 사회적으로 덜 위축됨(이정숙, 송화진, 2014)을 보고한 횡단적 연구들의 결론을 확인하고 확장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잠재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방임이 낮을 때는 ‘낮은-증가’ 대비 ‘낮은-감소’ 계층에 속할 OR이 높은 반면, 부모의 방임이 높은 수준일 때는 그러한 차이가 없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친구지지의 수준이 낮을 때 부모의 방임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증가’ 대비 ‘높은-증가’ 계층에 속할 OR이 증가하는 반면,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 때는 부모의 방임이 증가하더라도 OR이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친구지지가 완충시켜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의 발달궤적이 친구지지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보고한 외국의 종단연구(Gazelle & Rudolph, 2004)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친구지지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갈등 및 낮은 가족 유대감이 위축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한 국내의 횡단적 연구 결과(김성수, 2013)를 확장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가 다문화청소년 이해, 연구 및 중재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동안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대부분(약 85% 이상)의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축이 점차 증가하는 궤적을 따라 발달한다는 점은,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들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주목하여 지원하며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일반 청소년의 경우 이 시기 동안 사회적 위축이 대체로 안정 추세를 보인다는 외국의 연구결과(Oh et al., 2008)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둘째, 사회적 위축이 점차 증가하는 발달궤적에 속하는 청소년들 중 일부(14.3%)는 사회적 위축의 초기값도 비교적 높으면서 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궤적에 속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

며, 이러한 발달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태적 수준(예: 가족이나 또래집단 수준의 중재)과 개인 차원(예: 개인 및 집단상담)의 집중적 지원방안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룬 부모의 양육태도나 친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 관련 변인들 외에도 이러한 발달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요인들이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치더라도, 강력한 친구지지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여 다문화청소년이 보다 부정적 발달궤적으로 이행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친구지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하여 이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상담적 노력이 학교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을 긍정적 방향으로 바꿀 뿐 아니라 나아가 또래배제나 따돌림같은 청소년기에 비교적 흔한 사회적 관계 문제나 우울, 불안 등의 보다 심각한 정서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발달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특정한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초5부터 중3까지 5년에 걸쳐 사회적 위축의 전반적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4가지 이질적 발달궤적을 포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방임과 같은 가족관계 관련 변인이 사회적 위축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친구지지가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지도와 사회적 위축 예방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범위 상, 특정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국한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요인들과의 역동적 관계 등 사회적 위축의 발달과 관련된 포괄적 그림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및 확인하고 이를 체계화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는 노력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자, 손수민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와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이주여성 4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6(6), 161-188.
- 김경은, 최은희 (2017).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 가해관계: 사이버폭력 피해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8(3), 75-97. doi:10.20993/jssw.38.4
- 김명숙 (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37-47.
- 김성수 (2013).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관계가 우울/불안, 위축행동,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343-364. doi:10.35151/kyci.2013.21.2.016
- 김아영, 김수인 (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연구**, 25(4), 853-873.
- 김준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501-521. doi:10.20993/JEBD.34.4.21
-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 및 또래친구 요인의 조절효과. **청소년문화포럼**, 54(2), 67-93. doi:10.17854/ffyc.2018.04.54.67
- 민원홍, 손선옥 (2017).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발달 궤적에 대한 부정적 또래관계의 영향: 부모지도감독의 조절효과 감증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75-99.
-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doi:10.5723/KJCS.2014.35.1.1
- 박미경, 엄정애 (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신지현, 강현아 (2018).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4(0), 1-22. doi:10.20993/jssw.44.1
-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연구(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유지희, 황숙연 (2016).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경험과 관련요인: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3(1), 115-146.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Ⅱ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 이용순, 박성희 (2017).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공감능력향상, 또래지지 및 학교폭력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9(9), 1-30. doi:10.21509/KJYS.2017.09.24.9.1
- 이정숙, 송화진 (2014).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품행행동과 위축에 미치는 영향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59-72. doi:10.7466/JKHMA.2014.32.6.59
- 장 미, 전종철 (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 가정 아동과의 비교. **가족과 문화**, 25(4), 182-213. doi:10.21478/family.25.4.201312.007
-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문제의 하위 발달경로 확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77-197. doi:10.15842/kjcp.2013.32.1.010
- 조예진, 주해원, 현명호 (2015). 부정적 양육과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비행피해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2), 59-81. doi:10.14816/sky.2015.26.2.59
- 좌현숙 (2018). 아동기 사회적 위축문제의 종단적 변화와 예측요인: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27(2), 257-271. doi:10.17643/KJCE.2018.27.2.1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125-151. doi:10.22836/kaswpr.2017.8.2.125

-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doi:10.1207/s15374424jccp1904_1
- Bishop, J. A., & Inderbitzen, H. M. (1995).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 to self-estee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5(4), 476-489. doi:10.1177/0272431695015004005
- Booth-LaForce, C., & Oxford, M. L.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grades 1 to 6: Prediction from early paren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4(5), 1298-1313. doi: 10.1037/a0012954
- Degnan, K. A., & Fox, N. A. (2007). Behavioral inhibition and anxiety disorders: Multiple levels of a resilience proces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3), 729-746. doi: 10.1017/S0954579407000363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doi:10.1111/j.1467-8624.1989.tb04013.x
- Eggum, N. D., Eisenberg, N., Spinrad, T. L., Valiente, C., Edwards, A., Kupfer, A. S., et al. (2009). Predictors of withdrawal: Possible precursors of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815-838. doi:10.1017/S0954579409000443
- Fontes, L. A. (2005). *Child abuse and culture: Working with diverse families*. NY: Guilford Press.
- Gazelle, H., & Rudolph, K. D. (2004). Moving toward and away from the world: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trajectories in anxious solitary youth. *Child Development*, 75(3), 829-849. doi:10.1111/j.1467-8624.2004.00709.x
- Goodwin, R. D.,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04). Early anxious/withdrawn behaviours predict later internalising disord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4), 874-883. doi:10.1111/j.1469-7610.2004.00279.x
- Greenberger, E., Josselson, R., Knerr, C., & Knerr, B. (1975). The measurement

- and structure of psychosoci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127-143.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doi:10.2307/1129640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doi:10.1177/1094428117744021
- Oh, W., Rubin, K. H., Bowker, J. C., Booth-LaForce, C., Rose-Krasnor, L., & Laursen B. (2008).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from middle 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4), 553-566. doi:10.1007/s10802-007-9199-z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doi:10.1037/0012-1649.29.4.611
- Rubin, K. H., & Burgess, K. B. (2001). Social withdrawal and anxiety. In M. W. Vasey, & M. R. Dadds (Eds.),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iety* (pp. 407-43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med:psych/9780195123630.003.0018
- Rubin, K. H., Coplan, R. J.,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doi: 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Sterba, S. K., Prinstein, M. J., & Cox, M. J. (2007).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across childhood: Heterogeneity, external validity, and gender differenc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2), 345-366. doi:10.1017/S0954579407070174
- Wicks-Nelson, R., & Israel, A. C. (2015). *Abnorm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with DSM-V updates (global edition)*. Pearson Education UK.

ABSTRACT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among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Identifying latent classes and testing the impact of both neglectful parenting and supportive friendships

Jung, Jumi* · Lee, Donghyung**

This study sought to identify the latent classes which exist i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ocial withdrawal (SW) amongst multicultural youth, and test the impact of neglectful parenting (NP), supportive friendships (SF), and their interactions on these latent classes. We analyzed the 5-year longitudinal data from 5th through 9th grades, which is part of the MCAPS data collected by the KYPI since 2011. The results from our latent growth modeling demonstrated an overall linear pattern of slow and steady increment of SW over time, but with indications of heterogeneity within the group. Growth mixture modeling identified 4 distinctive trajectories.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the higher the NP was, the higher was the likelihood that adolescents belonged to the high-increasing rather than either the low-increasing or low-decreasing trajectories. The higher the SF wa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following a relatively more positive trajectory. Moreover, significant interactive effects were found that suggest that SF appeared to buffer the negative impact of NP on SW trajectorie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understanding and intervening with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youth, social withdrawal, neglectful parenting, supportive friendship

투고일: 2020. 9. 4, 심사일: 2020. 11. 12, 심사완료일: 2020. 11. 23

* Busan Metropolitan City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ounseling Team Member

**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Professor